

성별에 따른 고령자의 근로 여부, 근로소득 및 일자리 만족도의 결정요인

Determinants of Employment, Earned Income,
and Job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by Gender

양 은 모*

배 호 중**

국토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가족·저출생연구본부

Yang, Eun Mo

Bae, Hojoo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Korean Women's

Human Settlements

Development Institute

(초록)

우리나라는 근래 인구 고령화로 인해 근로하는 고령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층의 근로 문제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 근로소득 수준, 그리고 일자리 만족도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개인이나 가구 및 일자리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고령화연구패널’ 자료에서 60세 이상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자료의 분석 방법은 Heckman 표본선택모형을 활용했는데, 이는 노동시장 비참여자의 자료를 포함한 상태의 분석이었다. 자료 분석은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한 후에 남녀로 구분한 상태의 자료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령자의 근로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성별, 나이, 주관적 건강 상태 등 개인 특성, 그리고 자녀의 수, 자녀 동거 여부, 가구 순자산액 등 가구 특성으로 드러났다. 근로소득 수준과 일자리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도 근로 여부처럼 개인이나 가구 특성 요인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직종이나 종사상 지위 등의 일자리 특성 요인의 영향을 받았

*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양은모 부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e-mail: emyang@krihs.re.kr)

** Correspondence to: (우)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 배호중 부연구위원 (사회복지학 박사) (e-mail: baseball@kwdimail.re.kr)

다. 그리고 고령자의 근로 여부나 근로소득 수준,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는 성차가 드러났다. 예를 들면, 여성 고령자는 남성보다 근로소득이나 직무만족도, 상용직 비율이 더 낮은 편이었다. 논의에서는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령자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질 높은 일자리의 창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남성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 있는 여성 고령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노인 일자리, 인구 고령화, 고령 근로자, Heckman 표본선택모형

(Abstract)

In Korea, the number of older workers has been increasing due to the rapid aging of the population. However, research addressing the employment issue of older adults is relatively lacking.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come level, and job satisfaction among individuals who aged 60 and older, focusing on person-related, family-related and job-related characteristics. This study analyzed data on the respondents who aged 60 and over from the 2020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dataset of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The Heckman's sample selection model was applied in the analyses which included data on both labor market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Data analysis was first conducted on the entire sample, and then data separated by gender were also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actors determining the older adult's employment were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so on, as well as household characteristics such as the number of children, cohabitation with children, household net assets and so on. The level of earned income and job satisfaction of the workers were influenced not only by person- or family-related characteristics, but also by job-related characteristics such as occupational type and job status. Moreover,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mployment status, earned income level, and job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differed by gender. For example, the female older workers tended to have lower incomes, lower job satisfaction, and a lower proportion of full-time workers than the male workers. The discussion raised the need to create high-quality jobs tailored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older workers based on the findings. It was also pointed out that there is a need for stable jobs for older women, who are in worse working conditions than men.

Key words : Population aging, Employment of older people, Older workers, Heckman's sample selection model, KLoSA

I. 서론

산업화를 이룩한 다수의 국가에서 고령화는 보편적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매우 빠르고 압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Statistics Korea, 2023c).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령화지수, 즉 유소년인구 대비 고령인구의 비율은 2000년(34.3)에서 2020년(129.3)까지 꾸준히 증가했고, 2025년(201.5)과 2030년(301.6)에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tatistics Korea, 2022). 급격한 고령화 현상으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일하는 고령인구’의 증가이다(Nagarajan & Sixsmith, 2023). 우리나라의 경우 60세 이상 고용률(%)이 2010년 이후 줄곧 증가하고 있고, 유효퇴직연령도 72.3세로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OECD, 2019). 통계청의 ‘경제 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2010년 36.2%에서 2020년 42.4%, 그리고 2022년에는 44.5%까지 높아졌다(Statistics Korea, 2023b).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노동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고령층의 노동에 관련된 논의의 대상과 범위는 대부분 취업자 수나 임금 등의 계량적 수준이고, 성별이나 나이, 업종 등에 따른 집단 비교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Hwang, 2022; Statistics Korea, 2024a). 그러나 노동 관련 문제는 이를 공급하는 주체가 개인이므로 고령층의 노동문제도 역시 개인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개인의 특성에 따른 노동시장의 성과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고령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노동정책 수립에 더 적절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령층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개인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도출된 결과의 해석이 아니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같은 통계치에만 의존한 정책 때문일 수 있다(H. Kim, Sung, Chung, & Yeom, 20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층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할지라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다양한 요인에 따른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제기하였

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성별을 포함한 60세 이상 고령자 개개인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의 근로소득 및 일자리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전보다 더 실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의 고령자 경제활동 분석 대상은 고용 관련 법령 제시 기준에 따라 60세 이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했으며, 아울러 80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도 낮지 않음을 제시한 기존의 연구에 따라 상한 연령을 설정하지 않았다(E. Kang, Choi, Lee, Choi, Kim, Mun, & Park, 2022).

II. 이론적 배경

1. 고령자의 경제활동

경제활동 여부는 나이에 상관없이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요인인데, 특히 근로소득은 빈곤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다(M. Park, 2018).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대비 연금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943.6만일 때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연금 및 장애연금, 유족연금)가 662.7만 명으로 공적연금 수급 비율은 70.2% 수준이었다(Statistics Korea, 2024b, 2024c). 물론 해당 비율은 2012년(30.7%)에서 2023년(70.2%)까지 꾸준히 높아졌지만, 우리나라의 공적 노후 보장 제도는 노후 보장제도가 잘 구축된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낮은 수준의 공적연금 수급 비율과 더불어 낮은 연금 수급액 또한 노후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국민연금 1인당 월 지급액 평균은 2022년 12월 기준 53.3만 원 수준에 불과해 경제적 이유에 따른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육구)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National Pension Service, 2024). 실제로 2022년 ‘경제활동인구조사(고령층 부가 조사)’ 자료를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55~79세 응답자의 근로 의향을 살펴보면, 68.5%(15,098명 중 10,348명)가 장래에 근로를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이 근로를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57.1%)’을 위시하여 ‘일하는 즐거움(34.7%)’, ‘무료해서(4.1%)’, ‘사회가 필요로 함(2.1%)’, ‘건강 유지(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24b).

이러한 통계에 의하면, 현재 일을 하거나 원하는 고령자의 비중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건강 상태의 증진, 교육 수준의 증가 등과 같은 요인들은 향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고령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 60세 이상 취업자는 2000년 전체 취업자의 9.3%를 차지했는데, 매년 증가하여 2015년 13.8%, 2020년 18.9%, 그리고 2022년에는 20.9%까지 높아졌다(Statistics Korea, 2023d). 고령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성과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심한 정책발굴이 필요하다.

고령자의 경우 청년이나 장년층과 비교하여 살아온 기간이 긴 만큼 개인별 특성 차이가 더 분명할 수 있다. 고령층의 개인별 특성 중,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나이나 성별, 건강 상태, 비근로 소득, 자녀 수, 학력 등이다(E. Kang et al., 2022). 젊은 시절

과 비교할 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건강 상태인데, 이는 일종의 인적자본으로 기능한다(Bae & Yang, 2022). 즉, 고령이더라도 양호한 건강 상태를 유지할 시 취업 육구가 높아지거나 실제로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H. Choi, 2018; Ham, 2016; Hur, 2006; Jin, 2020; S. Kang, 2016; Shong & Park, 2012; Sung & Ahn, 2006). 고령자의 성별과 나이도 결정적인 요인인데, 여성보다 남성의 근로 가능성이 더 높고(H. Choi, 2018; Jin, 2020; Shong & Park, 2012; Sung & Ahn, 2006), 나이가 많을수록 그 가능성이 더 낮다(H. Choi, 2018; Jin, 2020; H. Kim & Yoo, 2004; Shong & Park, 2012).

고령층의 근로 의사결정은 가족의 영향력도 상당하다. 실제 여러 연구에서 자녀의 수나 배우자 유무(혼인상태), 가구의 재무 상태(비근로 가구소득, 자산이나 부채) 등으로 고령층의 취업을 설명한다(E. Kang, Kim, & Kim, 2012; Shong & Park, 2012). 물론 연구마다 각 요인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타 문화권의 예를 들면, 배우자가 있는 고령자가 없는 고령자보다 노동시장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배우자가 있는 고령자가 더 건강하기 때문이었다(Friedman, Goodkind, Cuong, & Anh, 2001). 한편 교육 수준과 고령자의 취업에 관해서는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자의 고용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지만(J. Lee, 2021), 일자리의 질까지 고려할 때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다(Y. Park & Chung, 2016).

2. 일자리의 질

고령자에게 경제활동 여부는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삶의 질은 어떤 일자리인지, 즉 일자리의 질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일자리의 질은 소득수준이나 근로 시간과 같은 객관적 지표로도 살펴볼 수 있지만(Song, Ryu, & Lee, 2021), 자율성이나 적성과의 일치도, 안정성이나 지속가능성, 경쟁 여부나 수준, 근로 환경의 안전성, 또는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등 객관적 지표에 의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Loughlin & Murray, 2013). 이처럼 일자리의 질은 여러 요인으로 측정될 수 있지만, 노동시장 성과로 자주 언급되는 일자리의 질 관련 대표적인 요인은 소득수준과 직무만족도이다(Song et al., 2021).

일자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다수에게 생계를 위한 경제적 보상의 일차적 근원이 되고 있다. 그러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에 일자리를 통한 소득수준은 근로자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1차와 2차 노동시장의 분절성이 심한 상황에서는 고소득 직종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일자리임을 뜻한다. 그러한 이유로 노동시장을 살핀 연구들은 대부분 일자리의 질 평가에서 다른 요인보다 소득수준을 더 우선시한다(M. Kim, Kim, & Cho, 2018). 근로소득이 개인의 생활에 매우 중요하지만, 고령자의 경우 소득수준으로만 일자리의 질을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고령자가 젊은 시절 어느 정도의 자산을 축적했다면 생의 후반기에 고소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

다. 상황에 따라서는 소득보다 일을 통한 보람이나 즐거움, 건강 유지나 활력 등의 비경제적 이유로 노동 장면에 참여할 수도 있다(Statistics Korea, 2024b). 또 ‘직업 선택 요인’에 대한 질문에서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젊은 사람들과 달리 수입 자체보다 직업의 안정성이나 명성 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편인데(Statistics Korea, 2023a), 이는 고령자에게 일자리의 질이란 소득수준과 같은 지표보다 일자리에 대한 만족 여부로 살펴봄이 더 적절함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직무에 만족할 때 이직률과 결근율이 낮은 편이며, 그 결과 생산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직무 이외의 역할 수행에도 긍정적이다(Johnson & Johnson, 2000; Lambert, Hogan, & Barton, 2001; Na, 2005; Voordt & Jensen, 2023).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살핀 연구는 주로 50대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들이지만(M. Choi & Shong, 2019; Chung, 2018; H. Kim & Kil, 2017), 고령 근로자 대상의 직무만족도 연구 결과도 역시 그 관련 요인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성별에 따라서는 고령의 여성 근로자보다 남성의 직무만족도가 더 낮았고(Jung, 2013; E. Park & Kim, 2017), 고령 근로자라도 나이가 많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더 높았다(Hur, Choi, & Kim, 2019; Jung, 2013; J. Lee, 2011). 또 고령 근로자의 건강 상태가 양호할수록 직무만족도가 높기도 하지만(Jung, 2013; J. Lee, 2011; E. Park & Kim, 2017), 고령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라지기도 한다(D. Kim, Chae, Kim, & Kim, 2017). 일반적으로

퇴직을 앞둔 고령 근로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Hong, 2006).

직무만족도와 관련된 또 다른 요인으로는 자녀의 수나 막내 자녀의 나이(Eom, 2008), 배우자 유무나 배우자의 경제활동 여부(E. Park & Kim, 2017), 가구의 재무 상태(J. Lee, 2011), 상용직 여부 등 고용 계약 기간(Jung, 2013; D. Kim et al., 2009), 근로 시간(Kim et al., 2009; E. Park & Kim, 2017), 업종이나 직종(E. Park & Kim, 2017)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개인이나 가구 특성 및 일자리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근로소득 및 일자리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했으며, 부수적으로는 남녀 고령자를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자료

고령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일자리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이하 ‘KLoSA’)' 자료를 활용하였다. KLoSA 자료는 일반에 공개된 통계청 승인자료(승인번호: 336002)라서 누구나 정책개발이나 학술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KLoSA는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라 고령자의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 및 정신적 삶 전반에 걸친 종단 자료(longitudinal data)를 제공하는데, 2006년 제1차 조사 이후 격년 단위로 기본조사가 진행되어 2022년 제9

차 기본조사가 완료되었다. KLoSA의 모집단은 2006년 제1차 기본조사의 경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지역의 45세 이상의 국민 10,254명이었고, 이후 표본이탈 등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2014년 제5차 기본조사 당시 신규로 920명의 표본이 추가되었다. 그 후 제8차(2020년) 기본조사는 기존패널 8,056명과 제5차 기본조사 당시 추가된 901명을 대상(총 8,959명)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이용한 표본은 제8차 기본조사의 대상자 8,959명 중에서 당시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5,327명(남성 2,219명, 여성 3,108명)이었다. 그들 가운데 1,492명(남성 863명, 여성 629명)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3,835명(남성 1,356명, 여성 2,479명)은 비취업 상태였다. 표본에 관한 제반 특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인 ‘근로소득’과 ‘직무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당시 일자리를 가진 자에서만 측정했다(기초자료는 <Appendix 1> 참조). 그러나 그들의 응답만을 토대로 분석한다면 비취업자의 자료를 누락시키는 표본선택편의에 직면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처럼 2단계 과정의 Heckman 표본선택모형을 통해 비취업자의 자료를 포함한 상태의 분석을 진행했다(J. Cho, 2017; S. Park & Cho, 2016; Song et al., 2021). Heckman 표본선택모형의 1단계 선택모형 및 2단계 결과모형에 종속변수가 각각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 1단계 모형의 종속변수인 취

업 여부의 자료는 더미 코딩(취업자 1, 비취업자 0)으로 투입했다. 한편 2단계 모형의 종속변수는 노동시장의 성과를 살피는 취업자의 근로소득 수준과 직장 만족도였는데, 그 중 월평균 근로소득 수준은 자료 분포의 정상성을 위해 자연로그값으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한편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변수는 개인 특성, 가구 특성, 그리고 일자리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개인 특성 관련 변수로는 성별, 나이, 건강 상태,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그리고 주관적 계층의식이었다. 그중 건강 상태는 5점 척도[매우 나쁨(1)~매우 좋음(5)], 교육 수준은 4단계(초졸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졸 이상), 그리고 주관적 계층의식은 6점 척도[하의 하(1)~상의 상(6)]로 측정했다.

가구 특성 관련 변수로는 자녀 수(명), 자녀와 동거 여부, 거주지역(서울, 인천·경기, 광역시, 수도권 및 광역시 이외의 지역), 자녀로부터 연간 지원 받은 금액(만원), 자녀에게 연간 지원한 금액(만원), 자가 보유 여부, 순자산액(만원),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의 월 평균 소득(만원)이 있었다. 여기에서 받거나 지원하는 금전 변수들은 생활비의 부족 정도나 의증 임금 등을 변화시켜 노동시장 참여 여부나 선택한 일자리의 특성에 미칠 영향 때문에 투입되었으며, 분석 시에는 자연로그값으로 투입되었다.

일자리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종사상 지위, 근로 시간, 직종, 그리고 산업의 네 가지를 고려하였다. 먼저 종사상 지위는 KLoSA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임금근로자의 경우 상용직, 임시직, 그리고 일용직, 또 비임금근로

자의 경우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했으며, 이들은 모두 분석 시 여부(여=1, 부=0)에 따라 더미 코딩했다. 근로 시간은 주당 평균 근로 시간에 대한 응답 값을 그대로 분석에 투입했다. 한편 직종의 경우 원래 KLoSA에서는 10가지 직종으로 조사했으나 그중 일부는 선택한 이들이 거의 없거나 유사해서 본 연구에서는 관리자·전문가, 사무직, 서비스근로자, 판매근로자, 농림어업근로자, 기능원·기계조작, 그리고 단순 노무 종사자의 7개 범주로 묶어서 재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 변수는 원래 KLoSA에서의 19개 보기 항목을 지닌 문항이었지만, 응답자가 거의 없는 항목들이 적지 않아서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농림어업 등(농업/임업+어업+광업), 통신·금융·부동산(전기가스수도사업+통신업+금융 및 보험업+부동산 및 임대업) 등의 6개 범주로 구분한 후 더미 코딩으로 투입하였다(<Table 1> 참조).

Heckman 표본선택모형에서는 1단계 모형을 구성하는 독립변수와 2단계 모형을 구성하는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너무 높으면 모형의 효율성과 일치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긴다(Jeong & Kim, 2017; Song et al., 2021).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녀 수’를 식별 변수(identification variable)로 활용했는데, 그 이유는 자녀 수가 취업 여부에 대한 분석인 1단계 모형에는 영향을 미치지더라도 근로소득 수준이나 일자리 만족도에 대한 분석인 2단계에서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많다는 것은 또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시기에 자녀(막내)를 출산하고 또 그 막내가 재

<Table 1> Description of study variables

변수특성	변수명		변수설명	
종속변수	ln(근로소득)		월평균 근로소득(만원)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일자리 만족도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4점 척도 (‘①전혀 만족하지 않음~④매우 만족’으로 역코딩)	
	노동시장 참여		참여=1, 비참여=0	
개인 특성	성별		남성=1, 여성=0	
	나이		단위(year)	
	응답자의 건강 상태		5점 척도(‘①매우 나쁨~⑤매우 좋음’으로 역코딩)	
	교육 수준	초졸 이하	초등학교 졸업 이하=1, 그 외=0	
		중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1, 그 외=0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1, 그 외=0	
		대졸 이상	대학교 졸업 이상=1, 그 외=0	
	주관적 계층의식		6점 척도(‘①하의 하~⑥상의 상’으로 역코딩)	
	결혼 관계		배우자 있음=1, 그 외=0	
	설명 변수	자녀 수		단위(명)
자녀와 동거		자녀 중 1인이라도 함께 살고 있으면 1, 그 외=0		
거주지		서울	서울=1, 그 외=0	
		인천·경기	인천·경기=1, 그 외=0	
		광역시	광역시=1, 그 외=0	
		기타 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이외의 지역=1, 그 외=0	
가구 특성		ln(지원 받은 금액)		연간 지원 받은 금액(만원)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ln(지원한 금액)		지원한 금액(만원)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자가 보유		보유=1, 그 외=0
		ln(순자산액)		순자산액(만원)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ln(타가구원 소득)		가구내 타가구원의 월소득(만원)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일자리 특성	종사상 지위	상용직	상용직 근로자=1, 그 외=0	
		임시직	임시직 근로자=1, 그 외=0	
		일용직	일용직 근로자=1, 그 외=0	
		자영업자	자영업자=1, 그 외=0	
		무급가족종사자	무급가족종사자=1, 그 외=0	
	근로 시간		현 일자리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	

<Table 1> Description of study variables

(continue)

변수특성	변수명	변수설명
설명 변수	직종	관리자·전문가 관리자, (준)전문가=1, 그 외=0
		사무직 사무직=1, 그 외=0
		서비스근로자 서비스근로자=1, 그 외=0
		판매근로자 판매근로자=1, 그 외=0
		농림어업근로자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1, 그 외=0
		기계조작 등 기능원, 기능 종사자,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
	산업	단순노무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1, 그 외=0
		농림어업 등 농림어업+광업=1, 그 외=0
		제조업+건설업 제조업+건설업=1, 그 외=0
		도소매·음식숙박업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1, 그 외=0
		공공행정, 교육·복지 공공행정+국제+교육+보건 및 사회복지=1, 그 외=0
		통신, 금융, 부동산 전기가스수도+통신+금융·보험+부동산·임대=1, 그 외=0
		운수·기타서비스업 운수업+기타서비스업=1, 그 외=0

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부모의 지원이나 투자가 더 오랫동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퇴직해야 할 시점이다라도 경제활동 지속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커져 또래보다 더 고령인 상태에서 취업을 원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는 근로자의 자녀 수를 토대로 임금 수준을 결정하지 않고 또 자영업자도 자녀 수에 따라 영업소득 수준이 결정되지 않는 등 그 수가 근로소득이나 직장 만족도에 영향을 직접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자녀 수를 Heckman 표본선택모형의 1단계 모형에서만 식별 변수로 삼았다.

3.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의 ‘일자리 질’은 ‘노동시장 참여 여부 및 근로소득 수준’ 또는 ‘노동시장

참여 여부 및 일자리 만족도’라는 두 가지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 두 정보를 토대로 다중회귀분석을 시도하게 되면 노동시장 비참여자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시장 참여자만 대상으로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한다면 표본선택에 따른 편의가 발생해 모수에 대한 추정량이 약할 수 있다(S. Park & Cho, 201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Heckman 표본선택모형을 활용했는데, 이는 다음의 수식(1)과 (2)로 구성된다(Heckman, 1979; Song et al., 2021). 여기에서 수식(1)은 노동시장 참여 확률에 대한 모형인데, $y_{2,i}^*$ 는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대한 잠재 변수 그리고 z_i 는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이다. 수식(2)는 근로소득 수준(또는 일자리 만족도)에

대한 추정모형인데, $y_{1,i}^*$ 는 근로소득 수준(또는 일자리 만족도)에 대한 잠재 변수 그리고 x_i 는 근로소득의 수준(또는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이다. 한편 수식(3)에서의 오차항 ϵ_i 와 ν_i 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y_{2,i}^* = z_i' \gamma + v_i, y_{2,i} = \begin{cases} 1, & y_{2,i}^* > 0 \\ 0, & y_{2,i}^* \leq 0 \end{cases} \dots\dots\dots (1)$$

$$y_{1,i}^* = x_i' \beta + \epsilon_i, y_{1,i} = \begin{cases} 1, & y_{1,i}^* > 0 \\ 0, & y_{1,i}^* \leq 0 \end{cases} \dots\dots\dots (2)$$

$$\begin{pmatrix} \nu_i \\ \epsilon_i \end{pmatrix} \sim N_2 \left(0, \begin{bmatrix} 1 & \rho\sigma \\ \rho\sigma & \sigma^2 \end{bmatrix} \right) \dots\dots\dots (3)$$

Heckman 표본선택모형의 2단계 과정에서 1단계는 수식(1)에 대해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을 이용하여 표본선택 확률을 추정하고, 2단계는 1단계에서 표본으로 선택된 사례만을 대상으로 모형을 추정한다. 수식(4)와 (5)는 수식(2)를 통해 계산되며, 여기에서 $\lambda(-z_i' \gamma)$ 는 역밀비율(inverse Mill's ratio, 이하 'IMR')이다(Green, 2003; Jeong & Kim, 2017; S. Park & Cho, 2016; Song et al., 2021). 즉, 1단계는 프로빗모형을 이용해 수식(1)에서 $\hat{\gamma}$ 를 추정한 후 $-z_i' \hat{\gamma}$ 를 계산해 $\hat{\lambda}(-z_i' \hat{\gamma})$ 를 구하며, 2단계는 수식(5)의 $\lambda(-z_i' \gamma)$ 를 $\hat{\lambda}(-z_i' \hat{\gamma})$ 로 대체한 상태로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해 β 와 β_λ 의 일치추정량을 구한다(S. Park & Cho, 2016).

$$E[y_{1,i} | y_{2,i}^* > 0] = x_i' \beta + E[\epsilon_i | \nu_i > -z_i' \gamma] = x_i' \beta + \rho\sigma \frac{\phi(-z_i' \gamma)}{1 - \Phi(-z_i' \gamma)} = x_i' \beta + \beta_\lambda \lambda(-z_i' \gamma) \dots\dots (4)$$

$$y_{1,i} | y_{2,i}^* = E[y_{1,i} | y_{2,i}^* > 0] + \nu_i = x_i' \beta + \beta_\lambda \lambda(-z_i' \gamma) + \nu_i \dots\dots\dots (5)$$

IV. 연구 결과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투입된 성별이나 나이 등 제반 변수들의 기술 통계치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전술했듯이 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KLoSA 8차년도 표본 5,327명(남성 2,219명, 여성 3,108명)의 것이었지만, 그중 조사 당시 취업 중이었던 자는 1,492명(남성 863명, 여성 629명)의 것이었다. 즉, <Table 2>에 제시된 통계치에서 종속변수 중 근로소득 및 일자리 만족도, 그리고 일자리 특성 정보는 그 1,492명의 것이었고, 나머지는 비취업 상태 5,327명의 것이었다.

2. 노동시장 성과 추정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따른 성과 추정 결과는 <Table 3>에 제시했다. 여기에서 '모형 I'은 Heckman 표본선택모형 1단계의 프로빗 모형을 활용한 결정요인 분석 결과이며 ($N=5,327$), '모형 II'와 '모형 III'은 고령 취업자의 임금수준과 직장 만족도 분석에 활용했던 Heckman 표본선택모형 2단계의 결과이다 ($N=1,492$). 참고로 2단계의 '모형 II'와 '모형 III' 모두 IMR값(.257과 -.086)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비취업자를 포함한 상태에서 노동시장 성과를 추정한 Heckman 모형 활용이 적절했음을 의미한다.

우선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살피는 결과는 <Table 3>에서 '모형 I'에 해당한다. 이를 개인과 가구 특성으로 구분하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study variables

변수 특성	변수명	전체 (<i>n</i> = 5,327)		남성 (<i>n</i> = 2,219)		여성 (<i>n</i> = 3,108)	
		<i>n</i>	<i>M</i>	<i>n</i>	<i>M</i>	<i>n</i>	<i>M</i>
		(%)	(<i>SD</i>)	(%)	(<i>SD</i>)	(%)	(<i>SD</i>)
종속 변수	근로소득(만원)		239.56 (477.82)		295.10 (454.76)		163.35 (498.13)
	ln(근로소득)		4.59 (1.75)		5.12 (1.27)		3.85 (2.03)
	일자리 만족도(점)		2.81 (.52)		2.79 (.52)		2.84 (.51)
	노동시장 참여(참여=1, 그 외=0)	1,492 (28.0)		863 (38.9)		629 (20.2)	
개인 특성	나이(year)		73.17 (8.70)		72.78 (8.32)		73.46 (8.96)
	응답자의 건강 상태(5점 척도)		2.19 (.85)		2.28 (.87)		2.13 (.83)
	초졸 이하	2,292 (43.0)		585 (26.4)		1,707 (54.9)	
	중학교 졸업	946 (17.8)		397 (17.9)		549 (17.7)	
	고등학교 졸업	1,546 (29.0)		836 (37.7)		710 (22.8)	
	대졸 이상	543 (10.2)		401 (18.1)		142 (4.6)	
	주관적 계층의식(6점 척도)		2.54 (.93)		2.64 (.92)		2.46 (.92)
	배우자(배우자 있음=1, 그 외=0)	3,818 (71.7)		1,973 (88.9)		1,845 (59.4)	
	자녀 수		2.82 (1.36)		2.64 (1.23)		2.95 (1.42)
	자녀와 동거(동거=1, 그 외=0)	1,328 (24.9)		526 (23.7)		802 (25.8)	
가구 특성	서울	726 (13.6)		297 (13.4)		429 (13.8)	
	거주지						
	인천 · 경기	1,188 (22.3)		483 (21.8)		705 (22.7)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study variables

(continue 1)

변수 특성	변수명	전체 (<i>n</i> =5,327)		남성 (<i>n</i> =2,219)		여성 (<i>n</i> =3,108)	
		<i>n</i>	<i>M</i>	<i>n</i>	<i>M</i>	<i>n</i>	<i>M</i>
		(%)	(<i>SD</i>)	(%)	(<i>SD</i>)	(%)	(<i>SD</i>)
가구 특성	광역시	1,310		564		746	
	거주지	(24.6)		(25.4)		(24.0)	
	이외의 지역	2,103		875		1,228	
		(39.5)		(39.4)		(39.5)	
	지원 받은 금전 총액(만원)		161.18 (300.00)		128.16 (277.98)		184.76 (312.69)
	ln(지원 받은 금액)		3.43 (2.37)		3.11 (2.35)		3.65 (2.36)
	지원한 금액(만원)		35.11 (260.40)		44.51 (298.67)		28.39 (229.01)
	ln(지원한 금액)		.48 (1.51)		.52 (1.60)		.46 (1.44)
	자가보유(보유=1, 그 외=0)	4,589 (86.2)		1,939 (87.4)		2,650 (85.3)	
	순자산액(만원)		24,064 (34,027)		30,124 (36,782)		19,738 (31,209)
	ln(순자산액)		9.23 (1.72)		9.63 (1.55)		8.94 (1.78)
	타가구원의 소득액(만원)		36.90 (113.54)		42.69 (113.45)		32.77 (113.45)
	ln(타가구원 소득)		1.01 (1.98)		1.25 (2.11)		.83 (1.86)
일자리 특성	종사상 지위						
	상용직	318 (21.3)		197 (22.8)		121 (19.2)	
	임시직	238 (16.0)		112 (13.0)		126 (20.0)	
	일용직	170 (11.4)		81 (9.4)		89 (14.2)	
	자영업자	633 (42.4)		458 (53.1)		175 (27.8)	
	무급가족종사자	133 (8.9)		15 (1.7)		118 (18.8)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study variables (continue 2)

변수 특성	변수명	전체 (<i>n</i> =5,327)		남성 (<i>n</i> =2,219)		여성 (<i>n</i> =3,108)	
		<i>n</i>	<i>M</i>	<i>n</i>	<i>M</i>	<i>n</i>	<i>M</i>
		(%)	(<i>SD</i>)	(%)	(<i>SD</i>)	(%)	(<i>SD</i>)
일자리 특성	근로시간(주당)		35.91 (16.91)		37.24 (16.59)		34.08 (17.18)
	관리자 · 전문가	134 (9.0)		101 (11.7)		33 (5.3)	
	사무직	49 (3.3)		36 (4.2)		13 (2.1)	
	서비스근로자	200 (13.4)		60 (7.0)		140 (22.3)	
	직종 판매근로자	138 (9.3)		64 (7.4)		74 (11.8)	
	농업근로자	275 (18.4)		164 (19.0)		111 (17.7)	
	기계조작 등	249 (16.7)		213 (24.7)		36 (5.7)	
	단순노무종사자	447 (30.0)		225 (26.1)		222 (35.3)	
	농림어업 등	326 (21.9)		179 (20.7)		147 (23.4)	
	제조업+건설업	224 (15.0)		181 (21.0)		43 (6.8)	
	도소매 · 음식숙박업	258 (17.3)		101 (11.7)		157 (25.0)	
	산업 공공행정, 교육 · 복지	1,492 (13.8)		70 (8.1)		136 (21.6)	
	통신, 금융, 부동산	73 (4.9)		50 (5.8)		23 (3.7)	
	운수 · 기타서비스업	405 (27.1)		282 (32.7)		123 (19.6)	

Note. Table에 제시한 정보에서 종속변수 중 근로소득 및 일자리 만족도, 그리고 일자리 특성에 관한 내용은 전체 응답자의 정보가 아니라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전체 *n*=1,492, 남성 *n*=863, 여성 *n*=629)의 것임 (Source: 「고령화연구패널」 8차년도 원자료).

<Table 3> Labor market performance

			[모형 I] (1단계: 근로 여부)		[모형 II] (2단계: 근로소득 수준)		[모형 III] (2단계: 일자리 만족도)	
			Coefficients	S.E.	Coefficients	S.E.	Coefficients	S.E.
상수항			3.504***	.488	5.903***	.352	2.223***	.232
개인 특성	성별		1.056***	.077	.126*	.055	-.140***	.036
	나이		-.086***	.006	-.028***	.004	.007**	.003
	건강 상태		.194***	.042	.061*	.028	-.002	.018
	교육수준 (ref. = 고졸)	초졸 이하	.083	.093	-.070	.059	-.018	.039
		중졸	.047	.095	.048	.056	-.003	.037
		대졸 이상	-.102	.103	.232**	.072	.089*	.047
	주관적 계층의식		-.032	.042	.069*	.027	.058**	.018
	배우자 유무		-.345***	.092	.173**	.061	.035	.040
가구 특성	자녀수		.115***	.035				
	자녀와 동거여부		-.213*	.084	.161**	.050	.038	.033
	거주지 (ref. = 서울)	인천 · 경기	.077	.126	.077	.073	.004	.048
		광역시	.048	.121	-.134†	.072	-.034	.047
		이외의 지역	.270*	.118	-.179*	.070	-.039	.046
	ln(지원 받은 금액)		-.051***	.015	-.022*	.010	.015*	.006
	ln(지원한 금액)		.028	.020	.007	.011	.002	.007
	자가보유여부		-.267*	.114	-.032	.065	.018	.043
	ln(순자산액)		.052*	.024	.044**	.017	-.001	.011
	ln(타가구원 소득)		1.314***	.083	-.093***	.019	-.031*	.013
	종사상 지위 (ref. = 상용직)	임시직			-.287***	.070	-.024	.046
		일용직			-.300***	.079	-.102*	.052
		자영업자			-.113†	.063	.008	.042
		무급가족종사자			-4.690***	.098	-.074	.064
일자리 특성	근로시간				.010***	.001	.002†	.001
	관리자 · 전문가 사무직				.215*	.093	.103†	.061
					.290*	.123	.114	.081
					-.002	.074	.127**	.049
	직종(ref. = 단순노무)	서비스근로자			.003	.100	-.031	.066
		판매근로자			-.076	.118	.048	.078
		농어업근로자			-.015	.070	.040	.046
		기계조작 등						

<Table 3> Labor market performance

(continue)

		[모형 I] (1단계: 근로 여부)		[모형 II] (2단계: 근로소득 수준)		[모형 III] (2단계: 일자리 만족도)	
		Coefficients	S.E.	Coefficients	S.E.	Coefficients	S.E.
일자리 특성	농림어업 등			.162	.131	-.012	.087
	제조업+건설업			.322***	.084	-.003	.055
	도소매·음식숙박업			.154 [†]	.088	-.051	.058
	통신, 금융, 부동산			.194 [†]	.111	.028	.073
	운수·기타서비스업			.106	.072	.012	.047
역밀비율(IMR)				.257***	.063	-.086*	.041
ρ				.335		-.171	
σ				.760		.501	

Note. Table에서 사례 수는 ‘모형 I’ $n=5,327$ 그리고 ‘모형 II’ 및 ‘모형 III’ $n=3,835/1,492$ (censored/uncensored)였음.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특성에서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결정해 주는 요인은 성별, 나이, 건강 상태, 그리고 결혼상태였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나이가 더 젊을수록, 건강 상태가 더 양호할수록,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그러나 교육 수준이나 주관적 계층의식은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결정해 주는 요인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둘째,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가구 특성 관련 요인의 영향으로는 자녀의 수가 더 많거나, 자녀와 함께 살지 않거나, 자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더 적거나, 자가를 보유하지 않거나, 가구의 순자산이 더 많거나,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거주지역의 경우 서울지역 거주자와 비교할 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

다. 그러나 고령자가 자녀에게 연간 지원한 금액은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제 <Table 3>에서 ‘모형 II’는 60세 이상 취업자의 근로소득 수준에 관한 추정 결과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특성과 관련해서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여성보다 남성이, 나이가 더 젊을수록, 스스로 더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학력이 대졸 이상인 자가, 더 높은 계층에 속한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더 높은 편으로 드러났다. 둘째, 근로소득을 결정하는 가구 특성 변수들을 살펴보면, 우선 자녀가 없거나 따로 살고 있는 자보다 자녀 중 1인이더라도 함께 사는 자의 근로소득이 더 높았다. 또 거주지역과 관련해서는 서울지역 거주자보다 광역시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 거주자의 근로소득이 더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자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많거나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이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가구의 순자산액이 많을수록 근로소득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녀에게 연간 지원한 금액의 많고 적음이나 자가 보유 여부는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다. 셋째, 일자리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먼저 종사상 지위에서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무급가족 종사자의 근로소득은 모두 상용직보다 더 낮은 편이었다. 한편 자영업자의 소득수준도 상용직보다 더 낮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p < .10$). 근로 시간이 길수록 근로소득이 더 높은 편이었다. 또 직종에서는 단순 노무 종사자보다 관리자·전문가 및 사무직이, 그리고 산업에서는 공공행정이나 교육·복지 종사자보다 제조업·건설업 종사자의 근로소득이 더 높게 드러났다.

끝으로 <Table 3>에서 ‘모형 III’은 60세 이상 취업자의 일자리 만족도에 관한 추정 결과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특성으로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여성보다 남성이 일자리 만족도가 낮고, 나이가 더 많을수록, 더 높은 계층에 속한다고 지각할수록, 학력이 고졸보다 대졸인 근로자가 일자리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주관적 건강 상태 지각이나 결혼상태 혹은 사별 등으로 인한 배우자 유무는 일자리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었다. 둘째, 가구 특성으로는 자녀 등에게 받은 금액이 많을수록,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의 소득이 낮을수록 일자리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러나 자녀와의 동거 여부나 거주지, 지원한 금액, 자가 보유 여부, 순자산액은 일자리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었다. 셋째, 일자리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먼저 종사상 지위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가 상용직보다 더 낮았으며, 직종에서는 단순 노무 종사자보다 서비스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분류는 일자리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었다.

3.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추정

고령자의 노동시장 성과 추정의 결과 여러 변수가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 근로소득 및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그중 세 가지 모형에서 일관성 있게 드러난 요인은 성별이었지만, 성과의 방향은 일치하지 않았다. 즉 남성 고령자가 여성보다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이 더 높고 또 근로소득이 더 높았음에도 일자리 만족도는 더 낮게 드러났다. 이에 부수적으로 남녀를 구분하여 노동시장 성과 추정을 시도했으며, 그 방식은 <Table 3>에 제시된 변수 중 성별만 제외한 상태의 분석으로 앞 절에 소개한 절차를 그대로 따랐다. 남성과 여성 고령자의 노동시장 성과 추정의 결과는 <Table 4>와 <Table 5>에 소개했다.

먼저 남성 고령자의 성과 추정에서 Heckman 표본선택모형의 1단계 전체 표본은 2,219명이었고, 2단계 결과모형의 표본 수는 노동시장 참여 중이었던 863명이었다. 여기에서 2단계의 ‘모형 II’와 모형 III’ 모두 IMR값(.357

과 -.113)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는데, 이는 Heckman 모형 활용의 적절성을 의미한다. 남성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결과는 <Table 4>의 ‘모형 I’에 해당한다. 이를 개인 및 가구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결정해주는 개인 특성 요인은 나이와 건강 상태였다. 즉, 나이가 더 젊을수록 그리고 건강 상태가 더 양호할수록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이 더 높았지만, 교육 수준이나 주관적 계층의식, 배우자 유무는 그 여부를 결정해주는 요인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가구 특성 관련 요인의 영향으로는 자녀의 수가 더 많거나, 자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적을수록, 자가 보유하지 않거나, 가구의 순자산액이 많을수록 근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또 거주지역의 경우 서울지역 거주자와 비교할 시 인천·경기지역이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사는 고령자가 근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와 동거 여부, 동거하는 다른 가구원의 소득수준, 그리고 고령자가 자녀에게 연간 지원한 금액 수준은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Table 4>에서 ‘모형 II’는 60세 이상 남성 취업자의 근로소득 수준에 관한 추정 결과이다. 첫째, 개인 특성으로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나이가 더 젊을수록, 스스로 더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학력이 대졸 이상인 근로자가,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남성 고령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더 높은 편이었다. 둘째, 가구 특성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우선 자녀가 없거나 따로 살고 있는 자보다 자녀

중 1인이라도 함께 사는 자가, 가구 순자산액이 많을수록,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 낮을수록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또 거주지역의 경우 광역시 또는 수도권 이외 지역 거주자가 서울 거주자보다 근로소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간 자녀에게 지원하거나 자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수준 및 자가 보유 여부는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다. 셋째, 일자리 특성 관련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먼저 종사상 지위에서는 상용직에 비해 무급가족 종사자의 근로소득이 더 낮았고, 근로 시간의 경우 근로 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직종의 경우 관리자·전문가 및 사무직의 근로소득이 단순 노무 종사자보다 더 높았다. 그리고 산업에서는 제조업·건설업, 도소매·음식 숙박업, 운수·기타서비스업 종사자의 근로소득이 공공행정이나 교육·복지 종사자보다 더 높았다.

끝으로 <Table 4>에서 ‘모형 III’은 남성 취업자의 일자리 만족도에 관한 추정 결과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특성으로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나이가 더 많을수록, 더 높은 계층에 속한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중졸 또는 대졸 이상 학력의 근로자가 고졸보다 상대적으로 일자리 만족도가 더 높았다. 그러나 주관적 건강 상태 지각이나 결혼상태 혹은 사별 등으로 인한 배우자 유무는 일자리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었다. 둘째, 가구 특성으로는 자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연간 금액이 많을수록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일자리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자녀와의 동거 여부나 거주지역, 자녀에게 지

<Table 4> Labor market performance: Male data

			[모형 I] (1단계: 근로 여부)		[모형 II] (2단계: 근로소득 수준)		[모형 III] (2단계: 일자리 만족도)	
			Coefficients	S.E.	Coefficients	S.E.	Coefficients	S.E.
상수항			4.661***	.669	5.200***	.540	1.785***	.317
개인 특성	나이		-.097***	.009	-.027***	.006	.010**	.004
	건강 상태		.215***	.056	.129**	.040	.010	.024
	교육 수준 (ref.=고졸)	초졸 이하	-.016	.128	-.084	.090	.017	.053
		중학교 졸업	.099	.126	.085	.081	.094*	.048
		대졸 이상	-.160	.120	.221*	.091	.108*	.053
	주관적 계층의식		-.013	.056	.025	.040	.053*	.023
	배우자 유무		-.218	.155	.185†	.111	.095	.065
가구 특성	자녀 수		.136**	.049				
	자녀와 동거 여부		-.138	.109	.188**	.071	.050	.042
	거주지 (ref.=서울)	인천·경기	.311†	.174	.093	.107	.039	.063
		광역시	.225	.168	-.176†	.106	-.043	.062
		이외의 지역	.440**	.166	-.236*	.104	-.024	.061
	ln(지원 받은 금액)		-.072***	.020	-.013	.014	.026**	.008
	ln(지원한 금액)		.017	.026	-.008	.016	.010	.009
	자가보유 여부		-.296†	.168	-.008	.096	.027	.056
	ln(순자산액)		.082*	.038	.099***	.028	-.001	.016
	ln(타가구원 소득)		8.722	83.569	-.090***	.025	-.035*	.015
	일자리 특성	임시직			-.178†	.107	-.042	.063
		종사상 지위(ref.=상용직)			-.212†	.126	-.174*	.074
		자영업자			-.155†	.088	.013	.051
		무급가족종사자			-4.866***	.242	-.321*	.142
		근로시간			.009***	.002	.003*	.001
		관리자·전문가			.258*	.127	.088	.075
		사무직			.403*	.164	.149	.096
		서비스근로자			.122	.135	.085	.079
		판매근로자			-.039	.172	-.038	.101
		농어업근로자			-.210	.243	-.079	.142
		기계조작 등			.039	.093	.051	.055

<Table 4> Labor market performance: Male data

(continue)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1단계: 근로 여부)		(2단계: 근로소득 수준)		(2단계: 일자리 만족도)	
		Coefficients	<i>S.E.</i>	Coefficients	<i>S.E.</i>	Coefficients	<i>S.E.</i>
일자리 특성	농림어업 등			.447 [†]	.251	.073	.147
	제조업+건설업			.479 ^{***}	.130	.010	.076
	도소매·음식숙박업			.407 [*]	.166	-.048	.097
	통신, 금융, 부동산			.239	.164	.048	.096
	운수·기타서비스업			.265 [*]	.123	.007	.072
역밀비율(IMR)				.357 ^{***}	.095	-.113 [*]	.056
ρ				.415		-.228	
σ				.845		.495	

Note. Table에서 사례수는 ‘모형 I’ $n=2,219$ 그리고 ‘모형 II’ 및 ‘모형 III’ $n=1,356/863$ (censored/uncensored)였음.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원한 연간 금액, 자가 보유 여부, 그리고 순자산액은 일자리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었다. 셋째, 일자리 특성 관련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먼저 종사상 지위에서는 상용직 근로자보다 일용직이나 무급가족종사자의 일자리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근로 시간이 길수록 일자리 만족도가 더 높았다. 한편 직종이나 산업 관련 특성은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다.

이어서 60세 이상 여성 취업자의 자료도 남성의 자료처럼 분석했으며, 그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여성 고령자의 성과 추정에서 Heckman 표본선택모형의 1단계 전체 표본은 3,108명이었고, 2단계 결과모형의 표본 수는 노동시장 참여 중이었던 629명이었다. 여기에서 2단계 ‘모형 II’는 IMR값(.277)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지만, ‘모형 III’은 그렇지

못했다(IMR=-.054, $p > 0.5$). 곧 여성 표본의 일자리 만족도에 관한 추정 결과는 Table에만 제시했으며, 분석 결과는 근로 여부와 근로소득 수준에 관해서만 살펴보았다.

먼저 여성 고령자의 근로 여부의 추정 결과는 <Table 5>의 ‘모형 I’에 제시한 바처럼 남성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첫째, 개인 특성에서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결정해 주는 요인은 나이와 건강 상태, 배우자 유무의 셋이었다. 즉 나이가 더 젊을수록, 자신의 건강을 양호하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보다 없는 여성의 근로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그러나 교육 수준과 주관적 계층의식은 근로 여부를 좌우하는 요인이 아니었다. 둘째,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가구 특성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함께 거주하는 다른 가구원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성 고령자의 근

<Table 5> Labor market performance: Female data

			[모형 I] (1단계: 근로 여부)		[모형 II] (2단계: 근로소득 수준)		[모형 III] (2단계: 일자리 만족도)	
			Coefficients	S.E.	Coefficients	S.E.	Coefficients	S.E.
상수항			2.995***	.786	6.499***	.434	2.608***	.372
개인 특성	나이		-.069***	.010	-.029***	.005	.005	.004
	건강 상태		.161*	.067	-.007	.035	-.009	.030
	교육 수준 (ref.=고졸)	초졸 이하	.165	.145	-.037	.070	-.081	.059
		중학교 졸업	.053	.152	.047	.070	-.146*	.060
		대졸 이상	-.053	.243	.374**	.130	.111	.111
	주관적 계층의식		-.069	.064	.131***	.033	.056*	.028
	배우자 유무		-.364**	.121	.091	.063	-.028	.054
가구 특성	자녀 수		.061	.050				
	자녀와 동거 여부		-.389**	.143	.083	.063	.034	.054
	거주지(ref.=서울)	인천·경기	-.238	.191	.041	.088	-.064	.075
		광역시	-.174	.182	-.095	.086	-.036	.074
		이외의 지역	.093	.171	-.050	.082	-.048	.070
	ln(지원받은 금액)		-.020	.023	-.033**	.011	.002	.010
	ln(지원한 금액)		.042	.032	.034*	.014	-.011	.012
	자가보유 여부		-.207	.159	-.155**	.076	.001	.065
	ln(순자산액)		.021	.033	-.008	.017	-.002	.015
	ln(타가구원 소득)		1.214***	.084	-.046	.030	-.028	.025
일자리 특성	종사상 지위(ref.=상용직)	임시직			-.395***	.079	-.012	.067
		일용직			-.371***	.088	-.053	.075
		자영업자			-.118	.085	-.019	.072
		무급가족종사자			-4.772***	.107	-.002	.091
	근로시간				.013***	.002	.001	.001
	직종(ref.=단순노무)	관리자·전문가			.143	.139	.044	.119
		사무직			-.069	.176	.003	.151
		서비스근로자			-.105	.074	.120†	.064
		판매근로자			-.072	.105	-.036	.090
		농어업근로자			-.023	.111	.098	.095
		기계조작 등			-.145	.122	-.088	.105

<Table 5> Labor market performance: Female data (continue)

		{모형 I} (1단계: 근로 여부)	{모형 II} (2단계: 근로소득 수준)		{모형 III} (2단계: 일자리 만족도)		
		Coefficients	<i>S.E.</i>	Coefficients	<i>S.E.</i>	Coefficients	<i>S.E.</i>
일자리 특성	농림어업 등			.024	.134	-.063	.115
	제조업+건설업			.134	.118	.042	.101
	도소매·음식숙박업			.055	.087	-.036	.075
	통신, 금융, 부동산			.299*	.145	.001	.124
	운수·기타서비스업			-.030	.078	.005	.067
역밀비율(IMR)				.277***	.077	-.054	.066
ρ				.472		-.110	
σ				.577		.494	

Note. Table에서 사례 수는 ‘모형 I’ $n=3,108$ 그리고 ‘모형 II’ 및 ‘모형 III’ $n=2,479/629$ (censored/uncensored)였음.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로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 수, 거주지역, 자녀로부터의 지원받은 연간 금액이나 자녀에게 지원한 금액, 순자산액, 그리고 자가 보유 여부는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Table 5>의 ‘모형 II’는 60세 이상 여성 취업자의 근로소득 수준에 관한 추정 결과이다. 첫째, 개인 특성으로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나이가 더 젊을수록, 학력이 대졸 이상인 근로자가, 그리고 더 높은 계층에 속한다고 지각할수록 근로소득이 더 높았다. 그러나 건강 상태와 배우자 유무는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다. 둘째, 가구 특성의 경우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자녀로부터 지원받은 연간 금액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에게 지원한 연간 금액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가 보유자가 아닌 자의 근로소득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녀와 동거 여부나 거

주지역, 순자산의 규모,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의 소득 규모는 60세 이상 여성 취업자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다. 셋째, 일자리 특성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무급가족 종사자의 근로소득 수준이 상용직 근로자보다 더 낮은 편이었다. 산업 구분에 따라서는 공공행정이나 교육·복지 종사자보다 통신이나 금융, 부동산 종사자의 근로소득이 더 높은 편이었다. 또 근로 시간이 많을수록 근로소득이 더 높게 드러났지만, 직종은 근로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IV. 논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

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자 인구 비율의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변화를 초래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일을 하는 고령층의 증가이다. 물론 평균수명의 증가로 과거보다 더 길어진 노후생활의 일환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고령층이 증가하기도 하고, 또 과거보다 더 건강한 상태이다 보니 고령에서도 근로 욕구가 높게 유지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고령의 근로자가 증가함에도 아직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밀하게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고령자 노동 관련 연구는 대부분 취업자 수의 전체적인 규모를 제시하거나 임금수준을 확인하거나, 이를 전년이나 전월 또는 집단 간(예컨대 성별/연령대별/업종/산업별 등) 비교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H. Choi, 2018; Jin, 2020; E. Kang et al., 2022; H. Kim & Yoo, 2004; Shong & Park, 2012; Sung & Ahn, 2006).

고령자의 경제활동 여부는 삶의 질과도 연결되는데,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는 건강 상태가 좋은 편이고 사회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됨을 의미한다(C. Kim, Yoon, & Ko, 2017). 또 고령층의 근로 여부의 결정은 젊은 세대와 달리 건강 이외에도 재정적인 여유 등 개인별 특성 차이가 분명하다(E. Kang et al., 2022). 따라서 본 연구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특성에 따라 노동시장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고령화연구패널(KLoSA)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 여부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수준 및 일자리 만족도를 함께 살펴보았다. 자료는 미취업자

표본이 포함된 상태에서 Heckman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해 분석했는데, 고령층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의 틀은 세 가지 영역, 즉 노동시장 참여 여부, 근로소득 수준 및 일자리 만족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는 먼저 전체 집단에 관한 부분을 제시했으며, 이어 세 가지 모형에서 일관성 있게 드러난 요인은 성별이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남녀로 구분한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른 논의도 결과 제시의 순서에 따라 세 가지로 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개인 특성 중에서 성별을 비롯하여 나이, 주관적 건강 상태, 배우자 유무가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드러난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였다(E. Kang et al., 2022). 그러나 교육 수준이나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학력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만(E. Kang et al., 2022; H. Kim et al., 2023), 본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와 같은 결과의 불일치는 아마도 서로 다른 고령자 기준에 기인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일부 연구에서는 고령자를 만 50세 이상으로 정의했던 반면(E. Kang et al., 2022),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으로 정의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주관적 계층의식의 차이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이유는 주관적 계층의식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거의 없어서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이제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대한 분석 중 개인 특성을 살펴보면, 남녀로 구분했을 때의

분석 결과는 전체 집단의 분석 결과와 배우자 유무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근로 여부는 배우자가 있건 없건 차이가 나지 않았던 반면, 여성의 경우 배우자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취업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은 배우자가 있을 때 그리고 여성은 배우자가 없을 때 가족부양의 책임이 커지면서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S. Lee & Phang, 2009).

노동시장 참여 여부의 분석에서 가구 특성 요인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의 수를 비롯하여 자녀와 동거 여부, 자녀로부터 연간 지원 받는 금액, 자가 보유 여부, 가구의 순자산 정도,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의 소득수준, 거주 지역은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에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고령자의 근로 지속 의사가 높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부분은 기존의 연구와 다르지 않았다(E. Kang et al., 201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자녀에게 연간 지원한 금액은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 금액과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살핀 연구가 거의 없어서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의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아서 그 금액 규모가 크지 않았으리라 추정된다.

이제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대한 가구 특성에서 남녀로 구분한 분석 결과는 전체 집단의 분석 결과와 여러 요인에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자녀 수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었지만, 남성 고령 근로자는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근로 가능성

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다음으로 자녀와 동거 여부는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는 상관이 없었던 반면에 여성은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을 때 근로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경우 고령의 상태에서도 주된 생계부양자로 노동시장에 줄곧 참여하는데 비해, 여성의 참여는 동거하는 자녀가 없는 경우 생활 수준이 더 낮기 때문이었을 수 있다. 또 자산액이나 자가 보유 여부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는 상관이 없었던 반면에 남성은 자가 보유 여부의 영향은 크지 않은 대신 가구 순자산액이 많을수록 근로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그 이유를 현재의 연구 자료를 토대로 검증할 수 없지만,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한다는 부분적인 의미는 젊은 시절부터 해오던 일을 아직도 하고 있어서 그동안 가구의 자산액이 어느 정도 축적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둘째, 근로소득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개인 특성 중에서 성별을 비롯하여 나이, 주관적 건강 상태, 학력, 주관적 계층의식, 배우자 유무가 근로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노동시장 참여 여부의 영향력 결과와 유사한 것이었지만, 소득수준에서는 학력과 주관적 계층의식의 영향력이 새롭게 드러났다. 다시 말하면, 대학 졸업자나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근로소득이 더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되면서 소득도 높아진다는 점과 맥을 같이 한다(Y. Park & Chung, 2016).

한편 근로소득 수준에 대한 분석 중 개인 특성에서 남녀로 구분했을 때의 분석 결과는

전체 집단의 분석 결과와 주관적 계층의식과 주관적 건강 상태, 배우자 유무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근로소득 수준이 더 높았지만, 남성의 경우는 주관적 계층의식과 소득수준의 상관성이 거의 없었다. 여성 고령자에게 이와 같은 관계가 두드러진 이유는 갓 노년기에 접어든 여성 중 고학력자가 많아지면서 계층의식의 범주가 넓어졌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H. Kim et al., 2023). 이와 반대로 남성의 경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지각할수록 소득수준이 더 낮았는데, 여성의 경우는 건강 상태가 소득수준을 좌우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성차는 현재의 자료로는 추론하기 어렵지만, 추후 배우자 유무 등의 다른 요인과의 복합적인 영향 등을 규명할 필요가 적지 않다. 또 소득수준과 결혼상태의 관계에서는 기존의 연구처럼 전체 집단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고령자의 소득수준이 없는 고령자보다 훨씬 더 높은 편이었다(Hong, 2018). 그러나 남녀를 분리한 자료 분석에서는 남성의 경우만 전체 집단에 버금가는 결과가 나타났던 반면($p < .10$), 여성의 경우 그 관계는 의미가 없었다. 여성에서 그런 차이가 드러나지 않은 이유를 다양하게 유추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으로 취업 중인 여성은 배우자 유무에 상관없이 남성과 달리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지 않은 일에 종사하고 있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다음으로, 근로소득 수준에 대한 분석 중 가구 특성 요인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와의 동거 여부를 비롯하여 거주 지역,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은 연간 금액, 가구 내 다른 가구원 소득, 그리고 가구 순자산액은 근로소득 수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고령자가 자녀에게 지원한 연간 금액이나 자가 보유 여부는 그렇지 않았다.

그와 같은 결과를 남녀로 구분하여 분석했을 때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먼저 남성은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소득수준이 더 높았지만, 여성은 그런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성차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유추할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인 남성의 전통적인 생계부양자 모델로 유추가 가능하다(Shin, 2014). 즉 남성의 경우 자녀와 동거한다는 사실은 아직 부양의 의무가 끝나지 않았기에 고소득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또 거주지와 근로소득 수준의 관계에서는 여성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소득수준의 차이가 없었지만, 남성의 경우 서울지역 거주자와 비교했을 때 인천·경기 이외 지역 거주자의 소득수준이 더 낮았다. 그 이유를 취업 중인 고령자의 일자리 직종 등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살펴야 했지만, 현재의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한 검증은 쉽지 않은 상태였다. 예를 들면, 현재 자료에서 취업 중인 고령자의 일용직이나 임시직 비율은 도합 27.4% 정도라서 비교적 저임금 수준인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설명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 자녀로부터 연간 지원받은 금액이나 자녀에게 연간 지원한 금액과 근로소득 수준의 관계에서는 남성 고령자의 경우에는 무관하지만, 여성 고령자의 소득수준은 자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나 자녀에게 지원한 금액이 많을수록 소득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다. 그와 같은 성차의 원인도 다양한 요인으로 유추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질적 자료가 없어서 분석이나 설명에 한계가 있었다.

이어서 자가 보유 여부와 근로소득 수준의 관계에서는 남성 고령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자가 보유 여부와 상관없었지만, 여성 고령자는 자가를 보유할 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소득수준이 더 낮았다. 현재의 연구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해서 설명할 수 없지만, 자가를 보유한 여성 고령자의 경우 생활의 안정으로 인해 일정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취업보다 다른 목적으로 취업하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또 자산액 규모와 근로소득 수준의 관계에서는 여성 고령자의 소득수준은 자산액 규모와 무관했지만, 남성 고령자의 소득수준은 자산액 규모가 클수록 소득수준이 더 높았다. 그 성차의 이유를 현재의 연구 자료만으로는 유추하기가 어렵지만, 남성 고령자가 자산도 많고 소득수준도 높다는 것은 젊은 시절부터 현재까지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의 소득과 근로소득 수준의 관계에서는 여성 고령자의 경우 별다른 관계가 없었지만, 남성 고령자는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이 더 낮았다.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 높을수록 남성 고령자의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그가 가구 내에서 주된 생계유지자가 아닌 보조적 생계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된다. 그러나 이는 자료의 세밀한 분석에 의한 추론은 아닌데, 예를 들면, 자녀와 동거하는 고령자 중 자녀가 주된 생계유지자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 수준에 대한 일자리 특성 요인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집단의 분

석에서는 종사상 지위나 근로 시간, 직종, 종사 중인 산업이 근로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자료를 남녀로 구분하여 분석했을 시 약간의 차이점이 드러났다. 먼저 종사상 지위에서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의 근로소득은 모두 상용직보다 더 낮았다. 전체 대상으로부터 드러난 그와 같은 결과는 여성 고령자로 국한할 때 그대로 드러났지만, 남성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성 고령자의 경우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이나 일용직, 자영업자 등과 차이를 보인 이유를 현재의 분석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지만, 그 부분적인 이유로 남성은 소득이 보장되는 상용직에 종사하더라도 고소득이 보장되는 전문직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근로 시간과 근로소득의 관계에서는 근로 시간이 길수록 남녀 모두 근로소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직종에 따른 소득수준에서는 여성의 경우 직종이 근로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즉, 남성은 관리자·전문가 및 사무직의 근로소득이 단순 노무 종사자보다 더 높았지만, 여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 이유를 현재의 분석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성 고령자의 경우 직종과 무관하게 관리자나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 주로 단순 노무 종사자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짐작할 수 있다. 산업과 소득수준의 관계에서는 남성 고령자는 제조업·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기타서비스업 종사자의 근로소득이 공공행정이나 교육·복지 종사자보다 더 높았지만, 여성은 통신이나 금융, 부동산 종사자의 근로소득이 공공행정이나 교육·복지 종

사자보다 더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성차가 드러난 이유를 본 연구의 원자료를 토대로 추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사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고령자에게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지를 묻는 대신에 여러 산업 분야의 직종을 묶어서 몇 개의 항목으로 나눈 다음 그중 하나를 택하도록 했기 때문에 산업별 분류에 따른 소득수준 평가는 한계가 있었다.

셋째, 일자리 만족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개인 특성 중에서 성별을 비롯하여 나이, 주관적 계층의식, 학력이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근로소득 수준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와 유사했지만, 일자리 만족도에서는 주관적 건강 상태나 배우자 유무는 근로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었다. 우선 성별에서 여성보다 고령의 남성 근로자의 직무만족도가 더 낮았고(Jung, 2013; E. Park & Kim, 2017), 나이가 많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더 높았다(Hur et al., 2019; Jung, 2013; J. Lee, 2011).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을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했을 때는 학력에 따른 결과에서만 차이가 드러났다. 학력에서 고졸 근로자와 비교할 시 남성의 경우 대졸이나 중졸의 근로자가 일자리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중졸 근로자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성차나 학력에 따른 만족도 차이의 추론은 본 연구의 자료만으로 어려웠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기 능력이나 학력을 토대로 기대하거나 원하는 일자리나 직무, 소득수준이 있었는지를 살피는 양적 또는 질적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졌다.

다음으로,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특성 요인의 분석 결과에서는 자녀로부터 지원받은 연간 금액과 동거 가구원의 소득만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또 이를 남녀로 구분하여 분석했을 때는 그러한 결과가 남성에게만 나타났으며, 여성의 일자리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구 특성 요인은 없었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자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많을수록 근로 만족도가 더 높은 편이었는데, 그 관계를 추가적인 양적 또는 질적 자료 없이 본 연구의 자료에 의해서만 설명하기가 적절하지 않았다. 또 남성 고령자는 타 가구원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내의 소득이 더 높았을 때 남편은 직무 만족 수준이 더 낮았다는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Waismel-Manor, Levanon, & Tolbert, 2016).

마지막으로,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특성의 결과를 살펴보면, 종사상 지위와 직종, 근로 시간이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드러났으나 산업 관련 특성은 이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었다. 한편 그 자료를 남녀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는 약간 다르게 드러났다. 먼저 종사상 지위가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는 남성 자료에서만 드러났는데, 일용직은 상용직에 비해 만족도가 매우 낮은 편이었다. 이는 상용직 여부 등 고용 계약 기간이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했다(D. Kim et al., 2009; Jung, 2013). 그러나 여성 고령자의 경우 그러한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현 자료에서 여성 고령

자 중 상용직 비율이 낮았거나 상용직이라도 지위가 낮았기 때문이었을 수 있다. 또 근로 시간이 길수록 일자리 만족도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남성 고령자 자료에서만 드러났는데(D. Kim et al., 2009; E. Park & Kim, 2017), 여성의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추후 여성 고령자들의 근로 시간에서 편차가 심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직종이나 산업에서 남녀별로 구분한 분석 결과는 전혀 차이가 없게 드러났다. 그러나 이는 참조집단을 변경해서, 예를 들면, 직종에서 단순 노무 대신 사무직 등으로 변경해서 분석한 결과까지 살펴본 결론이 아님을 밝힌다.

지금까지 고령 근로자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 및 근로소득 수준, 그리고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령 근로자의 성별이나 나이, 건강 상태와 같은 개인 특성 그리고 자녀의 수나 가구 순자산과 같은 가구 특성이 노동시장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이었고, 종사상 지위나 근로 시간과 같은 일자리 특성은 근로소득 수준과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음을 밝혀둔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고령자의 일자리가 젊은 시절부터 줄곧 종사 중인 일자리 아니면 퇴직 이후 고령의 상태에서 얻은 일자리였는지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의 자료를 이용했다는 점이다. 만약 그 구분이 제대로 된 자료의 분석이었다면 이직 경험을 비롯하여 근속 연수, 근로조건과 근로 동기 등 고령자의 일자

리 관련 다른 특성에 따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단년도의 횡단적 자료에 의해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적어도 몇 년을 주기로 측정한 다른 시기의 자료가 있는, 즉 종단적 자료 분석이었다면 결과가 다를 수도 있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2차 자료를 이용한 탓에 양적 자료 분석에서만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양적 자료 결과 해석의 애매성은 질적 자료를 통해 감소시킬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의 종료 시점까지 질적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근로소득 수준, 일자리 만족도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제 그와 같은 연구 의의를 바탕으로 고령자 일자리 관련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고령자의 취업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양적인 확대는 물론이고 일자리 만족도를 위해 개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과 연계한 일자리 질의 개선을 돕는, 또 그들이 축적한 인적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Jeon & Hong, 2020). 둘째, 본 연구에서 직접 다루었던 내용은 아니지만, 근래 홀로 지내는 여성 고령자의 생활 수준은 남성보다 더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취업한 여성 고령자의 직종은 주로 저숙련 단순직이었다는 점 그리고 소득수준도 남성보다 훨씬 더 낮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M. Kang, 2024; S. Kim, Yi, & Jeong, 2013). 셋째, 현재의 고령자 일자리 정책은 확일적으로 모든 고령자가 근로를

희망한다는 전제하에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마다 근로의욕이 다르고, 그 의욕이 있더라도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운 자도 있고, 건강하더라도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무보수 근로를 원하는 자도 있고, 일정한 수입을 원하는 자도 있다. 또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고령의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일을 원한다는 점이다. 일자리 창출 정책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Bae & Yang, 2022; J. Kim & Lee, 2022).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 no conflicts of interest.

References

- Bae, H., & Yang, E. (2022). Retirement and reemployment: Focused on the middle-aged and elderly wage worker. *Journal of Social Science*, 48 (3), 81-112.
- Cho, J. (2017). The wage determinants of college graduates using Heckman's sample selection model,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8 (5), 1099-1107.
- Choi, H. (2018). A longitudinal study on predictors of elderly employment (comparing young-old with old-old age group). A panel logit approach.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3 (3), 113-141.
- Choi, M., & Shong, I. (2019). The effects of youth's education and subject mismatch on wages and job satisfaction. *Social Science Research*, 26 (2), 85-102.
- Chung, D.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r/irregular workers and job satisfaction: The comparison of group differences among young workers.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18 (4), 105-130.
- Eom, D. (2008). The determinants of the older's decision to work: Focusing on 1st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8 (3), 17-38.
- Friedman, J., Goodkind, D., Cuong, B., & Anh, T. (2001). Work and retirement among the elderly in Vietnam. *Research on Aging*, 23 (2), 209-232.
- Green, W. (2003). *Econometrics* (5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Ham, S. (2016). The effect of health problems on old aged couples' labor supply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6 (4), 157-186.
- Heckman, J. (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 (1), 153-161.
- Hong, B. (2006). Determinants of the work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orkers before retire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30, 355-376.
- Hong, J. (2018). A study on how living alone

- or with a partner affects the elderly's life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 (11), 623-633.
- Hur, J. (2006). Determinants of decision making in employment among the non-working elderly person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8 (1), 291-318.
- Hur, J., Choi, S., & Kim, J. (2019). A study on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among the old workers living alone: Focused on gender and ag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9 (9), 411-429.
- Hwang, S. (2022). Population aging and generational conflict: Intergenerational equity over resource allocation. *Journal of Social Science*, 33 (2), 149-172.
- Jeon, Y., & Hong, K. (2020). The effects of job quality on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employees. *Social Welfare Policy*, 47 (2), 117-142.
- Jeong, M., & Kim, M. (2017). Korean women wage analysis using selection model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8 (5), 1077-1085.
- Jin, J. (2020). Effects of economic factors and community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elderly's participation in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For the elderly over 60 years old in Busa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3 (4), 265-293.
- Johnson, J., & Johnson, R. (2000). Perceived overqualificatio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ity, and satisfaction with work.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5 (2), 167-184.
- Jung, Y. (2013). Influences of work characteristics on older workers' job satisfaction: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4 (1), 119-132.
- Kang, E., Choi, K., Lee, S., Choi, Y., Kim, M., Mun, S., & Park, S. (2022). *Monitoring of policies and issues on the work and social activities of the aged people*. Research Monographs Series No. 2022-09. Sejong,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ang, E., Kim, H., & Kim, Y. (2012). A study on intention to job continuity and job types for aging of the baby boomer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55, 159-182.
- Kang, M. (2024). Determinants of elderly women's participation in elderly jobs. *The Journal of Women and Economics*, 21 (2), 41-63.
- Kang, S. (2016). A study on reemployment determinants, job Satisfaction and employment stability of the aged.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6 (3), 117-140.
- Kim, C., Yoon, S., & Ko, J. (2017). Economic activity and health conditions in adults aged 65 years and older: Findings of the Korean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n aging.

- Healthcare*, 5(4) [doi: 10.3390/healthcare5040063].
- Kim, D., Chae, S., Kim, S., & Kim, S. (2009). A study on factors which influence job satisfaction level among older people: Comparison of those with chronic disease and healthy condition,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45, 261-291.
- Kim, H., & Kil, H. (2017). Who shows higher job satisfaction?: In regard with university educa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18 (1), 145-167.
- Kim, H., Sung, W., Chung, J., & Yeom, J. (2023). *Analysis of variables in the participation rate of economic activities of the elderly*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의 변동 요인 분석). BOK Issue Note (No. 2023-16, issued at May 30, 2023). Seoul, Korea: Bank of Korea.
- Kim, H., & Yoo, K. (2004). Determinants of reemployment of the elderly worker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4 (2), 97-110.
- Kim, J., & Lee, M. (2022). An analysis of job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s work and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worker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5 (3), 127-155.
- Kim, M., Kim, M., & Cho, M. (2018). Qualitative research on private sector senior employment program: Deduction of logic model and analysis of effectiveness on policy target. *Moder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8 (3), 115-148.
- Kim, S., Yi, J., & Jeong, J. (2013). The mutual construction of aged women workers and the low wage work: The study on gender and age discrimination and occupational segregation of aged women.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13 (3), 59-90.
- Lambert, E., Hogan, N., & Barton, S. (2001). The impact of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ntent: A test of a structural measurement model using a national sample of workers. *The Social Science Journal*, 38 (2), 233-250.
- Lee, J. (2011). The effect of job demand and education/skill-job matches on job satisfaction among older workers in S. Korea.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14 (1), 125-149.
- Lee, J. (2021). Determinants of the old-aged workers' reemployment: Competing risk analysis of work statu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44 (3), 1-22.
- Lee, S., & Phang, H. (2009). An analysis of the polarization of the middle-aged and old worker's employment by age and gender.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9 (2), 593-610.
- Loughlin, C., & Murray, R. (2013). Employment status congruence and job quality. *Human Relations*, 66 (4), 529-553.
- Na, I. (2005). A panel data analysis on the relationships among job satisfaction, intent to leave, and turnover. *Korea Journal of*

- Business Administration*, 18 (2), 509-530.
- Nagarajan, N., & Sixsmith, A. (2023). Policy initiatives to address the challenges of an older population in the workforce. *Ageing International*, 48 (1), 41-77.
- National Pension Service. (2024). *National pension benefit payment statistics* (국민연금 급여 지급 통계). https://www.nps.or.kr/jsp/page/stats/stats_map.jsp (Released on 1 January 2024).
- OECD. (2019). *Pensions at a glance 2019: OECD and G20 indicators*. Paris: OECD Publishing. [doi: 10.1787/b6d3dcfc-en]
- Park, E., & Kim, J. (2017). The effect of older workers' household and job characteristics on job satisfaction: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17 (2), 1-32.
- Park, M. (2018). Determinant of the elderly poverty using decision tree analysi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 (7), 63-69.
- Park, S., & Cho, J. (2016). The wage determinants applying sample selection bia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7 (5), 1317-1325.
- Park, Y., & Chung, Y. (2016).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entry of middle and old aged workers into good jobs. *Social Welfare Policy*, 43 (1), 235-257.
- Shin, K. (2014). The changes in male breadwinner consciousness and its implication sfor gender relation in Korean family.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30 (4), 153-187.
- Shong, I., & Park, M. (2012). Comparative analysis on working decision between the aged and the semi-aged person. *Social Science Research*, 19 (2), 7-26.
- Song, S., Ryu, H., & Lee, Y. (2021). An analysis of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graduates of vocational high school: Focusing on career guidance and employment support.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21 (3), 115-142.
- Statistics Korea. (2022). *Supporting expenses and aging index* (부양 인구비 및 노령화 지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2&conn_path=I3. (Released on 29 September 2022).
- Statistics Korea. (2023a). *Career choice factors* (직업 선택 요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LA011R&vw_cd=MT_ZTITLE&list_id=D213_2009&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Released on 9 November 2023).
- Statistics Korea. (2023b). *Elderly people* (고령 인구).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Detail.do>. (Released on 14 December 2023).
- Statistics Korea. (2023c). *Population estimates: 2022~2072*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7&act=view&list_no=428476.

- (Released on 14 December 2023).
- Statistics Korea. (2023d). *Willingness and motivation for employment in the future* (성별 향후 취업 의사 및 취업 동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8044S&conn_path=I3. (Released on 25 July 2023).
- Statistics Korea. (2024a).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in april 2024* (2024년 4월 고용동향).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30100&bid=210&act=view&list_no=431013&tag=&nPage=1&ref_bid=210,211,11109,11113,11814&keyField=T&keyWord=. (Released on 22 May 2024).
- Statistics Korea. (2024b). *Overall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y age*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I3. (Released on 17 May 2024).
- Statistics Korea. (2024c). *Status of national pension service recipients*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09. (Released on 3 April 2024).
- Sung, J., & Ahn, J. (2006). What makes the older work for satisfactory lives?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6 (1), 39-74.
- Voordt, T., & Jensen, P. (2023). The impact of healthy workplaces on employee satisfaction, productivity and costs. *Journal of Corporate Real Estate*, 25 (1), 29-49.
- Waismel-Manor, R., Levanon, A., & Tolbert, P. (2016). The impact of family economic structure on dual-earners' career and family satisfaction. *Sex Roles*, 75, 349-362.

Received: March 4, 2024

Revised (first form): April 30, 2024

Revised (final form): August 16, 2024

Accepted: August 20, 2024

<Appendix 1> Differences in income level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older workers

		근로소득 (만원)			일자리 만족도 (점)			n
		M	SD	F	M	SD	F	
전체		239.6	477.8	-	2.81	.51	-	1,492
성별	남성	295.1	454.8	28.19***	2.79	.52	3.61†	863
	여성	163.3	498.1		2.84	.51		629
연령대별	60세~64세	319.2	657.6	7.52***	2.78	.54	1.11	578
	65세~69세	215.0	277.7		2.83	.44		374
	70세~74세	193.8	336.2		2.80	.57		294
	75세~79세	151.8	324.0		2.86	.49		153
	80세 이상	132.6	262.1		2.85	.51		93
건강상태별	나쁜편	120.1	203.0	2.67*	2.75	.57	1.60	118
	보통	235.4	556.9		2.83	.49		644
	좋은편	255.5	432.3		2.79	.51		625
	매우 좋음	290.5	401.3		2.84	.58		91
	최상	394.1	452.3		3.00	.55		14
교육수준별	초졸 이하	135.7	225.1	29.70***	2.80	.54	2.89*	433
	중졸	211.4	383.1		2.80	.50		306
	고졸	244.1	332.2		2.79	.51		571
	대졸 이상	519.9	1,029.0		2.91	.49		182
주관적 계층의식	하의 하	143.4	277.5	11.64***	2.70	.56	3.36**	121
	하의 상	224.1	543.3		2.78	.51		491
	중의 하	230.3	358.1		2.82	.50		645
	중의 상	319.6	618.1		2.89	.52		225
	상의 하	380.0	296.3		3.00	.00		6
	상의 상	1,818.5	1,304.9		3.25	.50		4
배우자 유무	없음	172.7	17.6	5.52*	2.80	.55	< 1	237
	있음	252.2	14.3		2.81	.51		1,255

† $p < .10$, * $p < .05$, ** $p < .01$, *** $p < .001$